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램 공개

어린이 전용관 · 치매친화 영화상영 등 특별 영화도 선보여

초여름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다양한 관객을 위한 영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관객과 함께 성장하며 관객 중심 영화제로 거듭나고자 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어린이 전용관 및 치매친화 영화상영 등 다양한 관객들을 위한 특별 영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다양한 관객을 위한 영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 관객과 가족 관객을 위해 어린이 전용관 '키즈스테이지'를 올해부터 신설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들을 선보일 키즈스테이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가족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편영화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된 한국단편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더불어 어린이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인형극 '꼭두'와 김명만 아저씨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무주동나무문동장 옆 지남공원에 마련될 키즈스테이지는 무주를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뜻깊고 알찬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매년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함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해 온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중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및 무주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친화 영화상영회 '영화와 추억이 함께 하는 기억극장'을 선보인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주 대상으로 진행될 분 상영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과, 상영 후에는 전문강사와 영화 내용을 환기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상영회는 치매 어르신뿐 아니라 치매에 관심이 있는 영화제 관객 모두가 관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무주군 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관객을 위한 아시

아 영화들을 선보인다. 2008년 국내에서 흥행을 거둔 차태현, 박보영 주연의 <과속스캔들>(감독 강형철)을 리메이크하여 베트남에서 흥행 성공한 베트남 영화 <할아버지는 30살>(감독 보 탄 호아, 2018)과 대만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만날 수 있는 2018년 대만 최고의 애니메이션 <해피니스 로드>(감독 신인성, 2018),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영화감독이 대만에서 어머니를 만나 짧은 여행을 함께 하는 감동적인 가족영화 <가족여행>(감독 이량, 2018)과 같이 현재 아시아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최신 영화들이 다문화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점검

진안군은 올해도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특보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231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더위에 대비하여 이달 말까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상가동 여부와 담당자 연락체계 현행화,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비치·관리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 신규 무더위쉼터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을 제외한 무

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실시 중이다. 군은 읍·면의 자체점검과 군의 최종 점검을 통하여 올 여름 주민들의 무더위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은 "무더위쉼터 전수점검을 통하여 미흡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무주군이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에 1억2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용도 농작업대 200대와 주행식 예초기 200대 등 총 40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다. 당초 도에서 배정했던 장비는 51대로 무주군은 농가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무주군이 지원하고 있는 다용도 농작업대는 높낮이 조절과 이동이 모두 가능하며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포장할 때 쓰인다. 주행식 예초기는 바퀴가 달려있어 손쉽게 제조 작업을 할 수 있어 농가 반응이 좋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업경쟁력, 또는 농지인력 부족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편의장비가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장비를 갖추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자율방재단 여름철 대응시작

장수군은 21일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및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자율방재단 단장 및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추진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 및 복구활동에 앞장서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단체로 평상시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펴고 재난 시에는 복구활동 등을 지원한다.

장수군 자율방재단은 7개 읍·면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재난·재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재해 대비해 줄 것을 부탁된다.

군은 자율방재단이 재난예방지역에

서 예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복과 조끼 등을 기 배부했고 올해는 모자를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발생시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응급처치법, 재난체험교육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권동주 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으며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방재단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재난·재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재해 대비해 줄 것을 부탁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11월 말까지 로컬JOB센터 출장 상담 예정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전주고용노동지청과(지청장 정영삼) 함께 29일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장상담소는 무주군청 앞 로컬JOB센터(구 관광안내소)에 마련되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취업성공 패키지 출장 상담'을 위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담사 등 2명이 매주 수·금요일 무주군을 찾게 되며 신청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청·상담받기 위해서는 전 주까지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매주 2번씩 전문가들이 무주를 찾아온다고 하니 그 자체로도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취업성공 패키지 출장 상담은 이달 초 무주군이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무주군은 상담 장소 제공과 구직자 발굴,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만 18~69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기간 동안 상담도 지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하는 마(魔)의 길”

장수군, 국도 제26호선 및 제13호선 대책 마련이 시급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에서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를 거쳐 장수읍으로 이어지는 국도 제26호선 및 제13호선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수군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로에서만 교통사고 15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교통사고 1건에 사망자 1명, 2016년 교통사고 4건에 사망자 1명, 2017년 교통사고 3건에

사망자 2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가 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현재까지 3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1년에 평균 1명이 숨지는 구간은 동부산악지역 국도 2차선 도로로 급커브와 종·횡단 선형 불량, 동절기 결빙, 운전자 시야불량 등이 사고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 이전에도 수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구간으로 장수에서 전주

를 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도교통부에서는 장수군의 4차선 확장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은 "밤에 운전하다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아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